

‘생태주의’, 인류생존을 위한 새로운 발전모델

탈근대적 문명전환 위한 대안적 모델...
인류차원의 ‘생태적 개종’ 요구돼

정수복 |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욕망의 확대에 기초한 소비적 산업문명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파괴해왔다. 생태사회학은 이런 산업문명적 세계관의 근본적 결함에서 출발한다. 21세기 인류의 생존을 위한 발전모델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기초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 집중화된 권력의 분권화, 비시장적 경제의 활성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터넷·벤처기업·코스닥·전자상거래·스톡 옵션·디지털 따위의 용어들이 온갖 언론매체를 타고 떠다닌다. 항상 쫓기고 불안한 심정이다. 누구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이버세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영토전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눈에 불을 켜고 정보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위협적 메시지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도 지난해까지는 선택과목으로 ‘환경’ 과목을 가르쳤는데, 올해는 ‘컴퓨터’ 과목으로 바꾸는 ‘개혁’을 발빠르게 단행했다. 교장은 대다수 학부모들의 요구에 응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빠른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외치는 21세기 정보사회론의 요란한 나팔소리 사이사이에 간간이 들려오는 북소리가 있다. 아무리 현란한 사이버 공간의 창조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두 발을 딛고 숨쉬고 사는 지구는 오로지 하나뿐이다. 컴퓨터만 두드리면 통달에서 피자까지 모든 것이 집으로 배달되지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흠과 바람, 해와 달, 숲과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태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그 희미한 북소리다. 이들은 21세기가 생태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

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욕망의 확대에 기초한 소비적 산업문명

정보사회론의 요란한 깃발을 보고 쫓아가기에 바쁜 우리들의 뒷덜미를 잡고 삶의 근본적 방향의 수정을 요구하는 생태사회론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문명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유럽 근대사회에서 태동한 산업사회적 발전 모델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것은 자연자원이 무한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인간 이성을 활용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온갖 물건을 대량생산, 대량소비하고 대량폐기하는 사회적 발전 모델이다. 욕망의 조절이 아니라 욕망의 확대에 기초한 소비적 산업문명은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전지구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인간의 정신적 평화를 깨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감수성 자체를 고갈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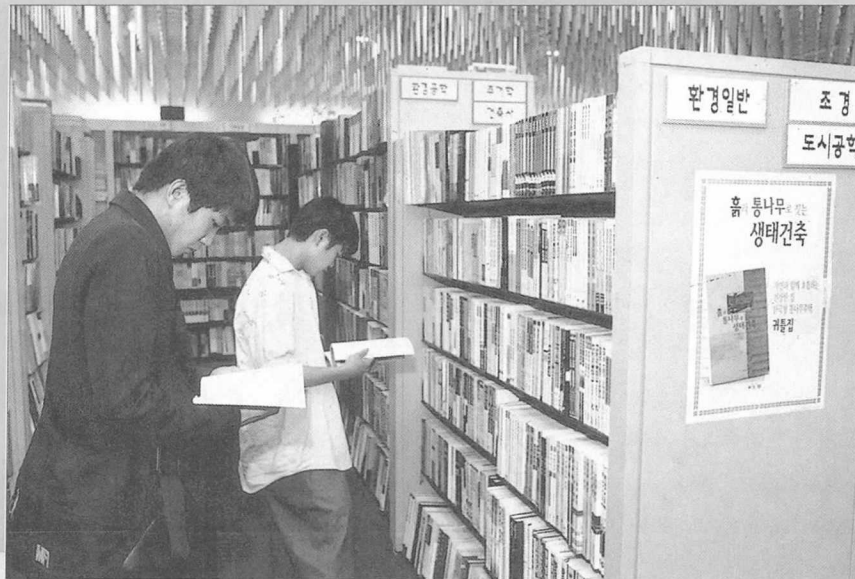
이런 생태위기의 잠재적 가능성은 이미 3~4세기 이전에 시작된 유럽의 산업문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산업문명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서 활짝 꽃피고, 다시 태평양을 넘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간 것이다. 정보사회는 근본적으로 서구적 근대화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다. 확대된 욕망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산업문명은 그 자체로 생태위기의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위기를 인식한 것은 불과 30여년 전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생태위기의 인식은 생태위기를 초래한 서구에서 시작했다. 2차대전 이후 6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풍요의 시대’를 구가하며 자라난 소위 선진국의 젊은 세대들이 ‘문명전환’을 요구하며 대안문화운동을 벌이면서 생태주의적 세계관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교와 유교 등을 포함한 비서구 문화와 인디언 문화 등 원주민 문화 속에 내장돼 있는 자연친화적 세계관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면서 물질적 쾌락과 황금만능주의에 찌든 산업사회를 거부했다. 이들 초기 생태주의자들은 정신적 평화와 자연과의 교감을 강조하며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찾는 공동체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을 벌이기도 하면서 산업사회의 발전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리우환경회의 이후 생태 인식 심화

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환경문제가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미 1980년대 중반에 ‘공해추방’을 위한 청년들의 운동이 시작됐지만 그것이 전 사회영역으로 확산된 것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 인식도 처음에는 수질오염·대기오염·쓰레기



21세기 인류의 생존을 위한 발전모델은 성장제일주의적 산업문명을 넘어서는 탈근대적 문명전환 운동이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생태학 코너.

문제 등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공해'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했으나, 그것이 좀더 넓은 의미에서 인간 사회와 자연 '환경'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연을 그 주변의 것으로 취급하는 '인간중심주의' 적 용어기 때문에 '생태'라는 말이 점차 널리 쓰이고 있다. 생태학이란 용어는 서양의 '에콜로지'라는 말의 번역어다. 그래서 생태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동양사상이나 우리 전통사상 안의 자연친화적 세계관을 끌어들이며 '생명'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아무튼 이제 그 인식의 깊이는 천차만별이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언론 매체들도 환경위기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댔고 시민 모두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그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입모아 말하게 됐다. 그리하여 본질적으로 가장 심오한 생태론자인 시인들을 비롯해 많은 문학예술인과 인문사회과학자들은 그 자체가 거대한 '집단지살체제'인 산업사회와 지식정보사회의 도도한 흐름을 경계하며 새로운 대안문명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후진국으로 불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발전모델은 미국이다. 소련과 동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대의민주주의·세계화를 향한 대의무역개

방이라는 세가지 원칙은 전지구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의 발전 방향이다.

초국적 기업과 WTO 등의 국제기구들도 이런 원칙을 신봉한다. 그리고 이 신성한 원칙을 지상에 가장 잘 실현한 나라가 미국으로 표상된다. 그래서 하노이의 청년이나 부다페스트의 소녀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미국 사람처럼 사는 것을 꿈꾸고 있다. 텔레비전을 넘어서 인터넷을 포함한 온갖 통신수단과 멀티미디어들은 현란한 광고 이미지들로 그 꿈을 실현하라고 자극한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 문명체제가 지속된다면,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미국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계속하면서 대량소비사회로 들어선다면 하나뿐인 지구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파국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다.

문명전환운동 펼쳐야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과 권력을 장악한 초국적 엘리트들은 "내가 사는 동안만 생각하기도 바쁜데 먼 훗날을 생각할 겨를은 없다"는 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정책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환경운동가들에게 근거 없는 생태위기로 따위를 퍼뜨려 흑세무민하지 말고 기존의 산업문명 안에서 좀더 현실적이

고 실현 가능한 환경운동을 벌이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생태사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산업문명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환경문제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산업문명 자체의 근본적 가정과 세계관 자체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한다. 경제와 정치, 문화와 사회구조에 이르기까지 근대 산업문명체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문화운동과 문명전환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월드위치 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지난 세기의 산업화 모델이 21세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인류는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류 전체의 보편윤리를 모색하는 독일의 신학자 한스 킹은 말한다.

"인류는 이제 근대성의 성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근본적으로 깨닫고 있다. 이성의 산물인 과학기술, 산업화, 국민국가 등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다."

유럽은행 총재였던 프랑스의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아무리 늦어도 21세기 중반이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 현재의 발전모델을 휩쓸어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적 발전모델이 폐기처분된 오늘날, 21세기 인류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기초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 집중화된 권력의 분권화, 비(非)시장적 경제의 활성화,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관계를 지향하는 생태사회적 발전 모델이다.

생태사회적 발전 모델은 근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성장 제일주의적 산업문명을 넘어서는 탈근대적 문명전환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서 덜 소유하고 덜 소비하지만 더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태적 개종(ecological conversion)을 통해 확산될 것이다. 앞으로 생태적 개종과 대안적 발전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